

연중 제24주일

제1독서 : 집회 27, 30-28, 7

제2독서 : 로마 14, 7-9

복 음 : 마태 18, 21-35

순정이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씩
일흔 번이라도 용서하여라.”
(마태 18, 22b)

강론

용서받음과 용서함

양석현 신부 / 고산 천주교회

용서하는 사람과 용서받는 사람은 반대의 입장에서 있다. 용서하는 사람은 관용을 베풀어야 하고, 용서받는 사람은 진실한 뉘우침이 있어야 한다. 용서하는 사람의 관용과 용서받는 사람의 통회가 상응될 때, 비로소 용서라는 이름의 화해가 이루어진다.

용서를 베푸는 것은 하느님의 일이고, 용서를 받아야 하는 것은 사람이다.

우리는 용서를 베푸는 일을 용서를 받는 일처럼 잘하지 못한다. 거기에는 아무래도 하느님의 은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매일 바치는 주의 기도에는 이런 대목이 나온다. “우리에게 잘못된 이를 우리가 용서하듯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이 말은 ‘우리에게 잘못된 이를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느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는 말로 바꾸어 생각할 수도 있다.

오늘 복음에 좋은 예가 나온다. 일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고도 백 데나리온밖에 안되는 빚진 동료를 감옥에 가둔 사람의 이야기이다.

하느님께 용서를 받은 우리의 태도는 어떠한가? 오늘 복음의 종과는 달리 하느님께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도 이웃의 잘못에 관용을 베풀고 있는지.....

하느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무한히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용서한다는 것이 비록 어려운 일이지만 불가능한 일이 아니며 오히려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점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다.

용서한다는 것은 곧 용서받는다는 것과 같은 것이니!

소리

20억원+α

지난해 11월, 신한국당 강삼재 사무총장은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에 대해 스스로 밝힌 20억원 외에 89년, 5공 청산 대가로 노태우 씨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비난했다.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에 걸쳐 기자간담회라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이른바 ‘20억원+α’ 설(說)이다.

국민회의는 ‘김대중 죽이기’ 음해라며 강 총장을 검찰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고 김영삼 대통령의 대선자금 공개를 촉구하는 등 여·야간 격렬한 비난전으로 가파른 정국을 이루었다.

국민들은 “집권당 사무총장이 근거없는 말을 했을 리 없다” “뭔가 있는 것 아니냐”며 검찰의 처리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김 대통령의 대선자금에 대한 의혹 또한 국민여론은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검찰은 이 사건을 9개월이나 묵혀뒀다가 최근 강 총장의 발언을 “정치적 공세일뿐 상대를 비방할 목적이나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했다. 강 총장이 무혐의라면 ‘+α’가 있다는 것인지, ‘+α’는 없지만 무혐의 처리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의혹만 짙어갈 뿐이다.

강 총장은 거듭 “심증이 있다”는 주장. 국민회의도 강 총장을 재고발 했다.

검찰은 이번 기회에 국민들의 의혹을 말끔히 씻어 주어야 할 것이다. □

순정이 산책



2000년 대희년

얼마나 귀한 순교성인들인가

김진소 신부 / 호남교회사 연구소

한국교회의 순교자는 몇 명이나 될까? 그것은 오늘날 중국의 인구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다. '사료(史料)없이 역사가 없다'고 하지만 정부는 신도들을 금수처럼 다루고, 신도들은 가마 속에 갇힌 물고기 신세였으니 순교자들의 죽음을 찬찬히 채겨줄 곳은 아무데도 없었다. 그런 사정으로 규모가 크다는 박해들의 예를 보아도 보고하는 사람마다 제 각각이어서 순교자의 숫자는 그저 어림수로 가능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순교자의 숫자가 알려진 것은 신유박해(1801년)부터였다. 이 박해로 한국교회는 초토화되었고, 1811년부터 살아남아 있던 한미안 교우들은 새로 교회를 창설하는 심정으로 교회개건운동을 시작하여 북경 주교와 로마 교황청에 신부 파견을 간청하는 탄원서를 피눈물로 써 보냈다. 신도들은 그림의 떡은 배를 채울 수 없고, 그림 속의 용은 비를 오게할 수 없듯이 사제로부터 성사의 은총을 받을 수 없는 자신들의 처지를 것처럼 여겼다. 1795년에 입정한 주문모를 신도들이 천사처럼 떠받든 이유도 성사의 은총 그것 때문이었다. 이 탄원서에서 1801년의 순교자 수를 북경 주교에게는 1백 수십여명으로, 교황에게는 1백 여명으로 보고했다. 그리고 기해박해(1839년)의 경우, 김대건 신부는 순교자를 200여명으로(제7신), 최양업 신부는 160명으로(순교사기) 말하지만 전라도는 물론 대부분의 지방 순교자가 누락된 채 서울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파악된 것이어서 이것도 허수였다. 병인박해(1866년)의 경우는 더욱 심했다. 달레는 8,000명(하, 480쪽), 황현(黃玹)은 2만명(속음청사), 그리고 뫼텔 주교는 10,000명(1900년의 보고서)으로 말하면서 심산궁곡에서 기아와 곤궁으로 죽은 사람

을 뺀 숫자였다 하니 그 참상을 어찌 귀로 들겠는가.

부족한 자료를 가지고 추진한 시복운동은 결국 순교자 수에 비해 성인의 수를 든 부자꼴로 만들었다. 게다가 순교자의 판단기준에서 그랬듯이 교회의 완전주의적 입장은 시복대상자 선정이나 심사과정이 야박할 정도로 엄격했다. 우리가 공경하고 있는 103명의 성인은 기해박해의 순교자 7명과 병오박해(1846년)의 순교자 9명, 병인박해의 순교자 24명 등이다. 그런데 기해·병오박해의 경우 순교자를 선정하는데 105회에 걸친 재판을 개정했다. 그리고 1847년 시복운동을 시작한 후 78년 만인 1925년에 복자품에, 139년이 되는 1984년에서야 성인품에 올랐다. 병인년 순교자의 경우 시복수속을 위한 교구재판을 1899년부터 1900년까지 135회를 개정하여 겨우 29명만을 뽑아 1918년 교황청에 상신했다. 이때 시복대상자의 선정이 하도 엄격하고 까다로우서 가혹하다는 불평을 남겼다. 그러나 교황청에서는 그나마 3명을 탈락시키고, 26명에 대한 재조사를 한국교회에 지시하여 1921년부터 5년 동안 129회의 재판을 열었다. 1968년 교황청은 또다시 3명을 탈락시켜 24명만을 복자품에 그리고 1984년 성인품에 올렸다. 시복을 추진한 지 67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었다.

얼마나 엄숙하고 신중하게 뽑힌 성인들인가. 숫자가 무에 대수겠는가. 하느님은 넓고 깊은 바닥 속에서 쌀을 주어 모으듯 만인이 경모하는 만부지망(萬夫之望)의 성인을 103명이나 우리들에게 신앙의 먹거리로 주시지 않았는가. 우리는 남들의 정신으로 연명할 수는 없는가. 남들의 믿음에 굶주릴 수는 없는가. 이 땅의 순교선조는 남이 아니라 '우리'이며 곧 '나'가 아닌가!

진도 패션 전주점
모피, 무스팡, 남성복 전문매장
· 9월20일까지 세일(50%~20%)
· 연중무휴
손한성(바오로)·정정남(가타리나)
전주시 고사동(구)역전오거리 천보당
☎ 231-2005~7

겔로이·퀵트하우스
· 스텐실, 토펬인팅, 퀵트(손바느질)공예
· 완제품, 반제품 판매 및 수강생 모집
조미현(울리안나)
서신2지구 성원APT 정문 앞
☎ 72-5522

화랑다농 직설차
지리산 산수 좋은 곳에서 자생하는 야생잎을 따서 손수 만든 전통 농차입니다. 자연산 향기와 맛을 자랑하는 최고의 품질입니다.
(신속하게 우편으로 우송해 드립니다)
권순옥(젤마)
경남 하동군 화계면 용강리
☎ (0595)83-6624

김희민 정형외과
뼈, 관절, 척추, 신경
최신물리치료기 도입, 입원실
김희민(루가)
남전주 진화국 앞 (구 영광주유소자리)
☎ 226-7600~1

잡간

가족이 함께 성지 순례를

우리는 지금 순교자성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순교자는 한국교회의 언론입니다. 그 어느 시기보다도 순교자성월이 되면 순교자를 찬양하는 우리의 목적은 높기만 하고 순교정신에 대해 많이 듣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늘 반복되는 일상생활 속에서 그 정신을 제대로 실천해 나가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순교자성월인 이 9월에는 순교자 현양대회 등 순교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대규모의 행사를 각 교구마다 개최합니다. 특히 이 땅 최초의 사제 성안드레아 김대건 신부님이 서울 한강변의 새남터에서 순교의 피를 뿌리신 지 꼭 150주년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는 이러한 행사가 더욱 장엄하게 열릴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대회에 가능한 한 자녀들을 데리고 가족 단위로 참여하여 미지근한 우리들의 믿음을 더욱 뜨겁게 달구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이 9월에는 순교자들의 발자취가 서려있는 이 땅 곳곳의 성지를 본당 단위 또는 레지오 마리에 등 각 단체별로 성지순례를 하는 것도 나름대로의 의미가 크겠지만, 가족 단위로 우선 가까운 성지부터 순례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자녀들과 함께하는 성지 순례라면 더욱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가족 성지 순례는 자녀들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거리로 오래도록 자리할 것입니다. 그것이 힘들다면 부모만이라도 주위의 성지를 직접 찾아보도록 합시다. 우리 신앙 성조들의 거룩한 삶의 향기를 음미하면서 자신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는 일은 그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의 좋은 채찍이 될 것입니다.

요즈음은 숙박시설이 갖춰진 성지도 적지 않으므로 가족 단위의 피정을 겸한 성지 순례도 계획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가족 단위의 성지 순례가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부모 특히 가장의 굳은 의지와 결단만 있으면 주말을 이용하여 가족이 가까운 성지를 찾는 일이 결코 힘들고 어려운 일만도 아닐 것입니다.

가족이 함께 떠납시다. 믿음이 배인 거룩한 땅으로!!

교구 및 제 단체 소식

1. 사제피정 : 9월16일~20일, 아론의 집
2. 숲정이 성당 본당의 날 미사 : 9월22일(일) 오전10시30분, 주례-이병호 주교
3. 전국 간호사회 이사회 피정 : 9월21일~22일, 천호 피정의 집
4. 상설고백소 : 9월20일(금) 사제 피정으로 쉽니다.
5. 혼인강좌 : 9월22일(일) 오전9시30분 가톨릭센터, 회비-1인당 15,000원
6. 기능실 신축기공식 : 9월15일(일) 후3시 작은 자매의 집 ☎ (0653)834-3555
7. 순교자 현양 가든 음악회 : 9월21일(토) 오후7시30분, 전동 성당
순교자 현양 햇빛 미사 : 9월20일(금) 오후7시30분, 치명자산
8. 성민호 신부 주소 : ☎ 560-160 전주시 진북동 1034-1
동국해성아파트 101-1505 ☎ 251-7755
9. 정삼권 신부 주소 : ☎ 515-799 전남 장성군 삼서면 학성리 사서함
75-1 상무대 성당 ☎ (0685)394-6376

※ 축영명! : 20일(성조윤호 요셉) 최중수 신부님

21일(성마태오) 황인규, 김진석, 유중환, 김진화, 박종탁 신부님

요심이 (1203) 김병오

당국이요? 왜소비성
외국관광을 억제
안습니까?

년령과 환전금액을
제한하고 입국 때
사치품은 많은세금을
부과하고...

아 그래서
못하는군요?!
뭐라고
하나?

그러면 돌지
않고
자기아들을 외국관광을
못하게 된다고...

초대합니다
송천동 제2성전 신축 바자회
· 일시 : 9월12일(목)~15일(일)
· 장소 : 송천동 서호아파트 앞
서호주정(주) 서림빌
· 주최 : 천주교 송천동 성당 제2성전
신축 추진위원회 ☎ 74-1004

**오순절 평화의 수녀회
성소모임**
초대 교회 공동체의 정신으로 수도
생활을 하고자 하는 고졸이상의 미혼
여성
· 일시 : 9월22일(일) 오후2시
· 장소 : 삼량진 본원(0527)52-4241
· 준비물 : 신구약 성서

연지곤지 웨딩 이벤트
드레스 35만~40만원
(신부화장, 부케, 폐백옷 무료)
유순이(가타리나)
전동성당 시대버스 승강장 앞
☎ (주)82-2347 (야)225-5755

덕진 삼익피아노
(서정우 특약점)
· 국가공인 1급 A/S 지정점
· 36개월 할부, 중고보상교환
서정우 · 이해경(클라라)
북전주전화국←→법원 중간
☎ 253-3232, 254-2631

**영창피아노 전주 총 전시장
A/S 전문점**
· 10개월 무이자 판매
· 중고 피아노 교환 우대
· 신자분 특별우대
전상진(베드로) 유명숙(요안나)
구서중로타리 동서증권 맞은편
☎ 252-0103~4

**서울 성가 소비녀회
성소모임**
· 때 : 9월22일(일) 오후1시30분
· 곳 : 수녀원 본원
(성북구 정릉1동10)
· 문의 : (02)940-5928, 5828, 5800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노송동** 주임신부 82-9663 사 부 실 82-9661 주임신부 별 영 배
F A X 82-9664 수 너 원 82-9662 사목회장 김 동 주

- ◎ 9월은 순교자 성월 : 순교자의 정신을 본받습니다.
1. 축! 영명(29일) : 빌라파엔 신부님 * 영명축일을 중심으로 축하하며 영육간 건강하시길 기도바람.
* 축하식 및 나눔의 잔치-22일, 공식미사 후
 2. 사제연례 피정 : 16일~20일
16일-새벽미사, 17일~20일-말씀의 전례
* 신부님을 위하여 많은 기도바람.
 3. L.M단원 교육 : 21일(토) 후 2시, 전단원 참석바람.
 4. 전례봉사자모집 : 대상-전례봉사에 관심있는 분
신청-사무실, 각 구역별 남녀 2명이상
 5. 추석합동 위령미사 예음접수 : 26일까지, 사무실
 6. 모임 : ①자비의 모후Cu.-오늘, 공식미사 후
②제속형제회-오늘 후 2시 ③빈첸시오회-18일 전 11시
④여성연합회-20일 전 11시 ⑤천사의 모후Cu.-22일 공식미사 후
 7. 금주 전례 : 새벽-남노구역, 저녁-동진구역
공식 안내-M.E, 해설-손만술, 독서-①서남석 ②유계간
신자들의 기도-송석장, 윤은화, 봉헌-정선열 부부
 8. 차주 전례 : 새벽-인후1구역, 저녁-인후2구역
공식 안내-성우희, 해설-노광용, 독서-①한기성 ②황의숙
신자들의 기도-이봉기, 조분남, 봉헌-진도열 부부
 9. 금주 청소 : 남노 6, 중노 1번
 10. 차주 청소 : 중노 2,3번
- 지난주 봉헌금 : 1,077,270원 □ 교무금 : 1,283,500원

*** 서학동** 주임신부 84-8307 사 부 실 86-4929 주임신부 이 증 원
수 너 원 84-2276 사목회장 민 병 부

1. 축! 세례식 : 21일(토) 후 7시, 본당
* 집중교리-18일(수)~20일(금) 후 7시30분, 강당
* 참석바람(통신교리자 포함)
* 통신교리자는 신부님, 수녀님께 연락 바람.
 2. 신교세미나 : ①제록-2당신도 전교할 수 있습니다.
②월시-22일(일) 후 2시 ③장소-서학동 성당
④강사-김영태(루도비코) 전 광주 세나투스 단장
⑤교제대-2,000원
* 레지오단원, 신심단체장, 구역장, 그외 모든 신자들은 필히 참석바람.
 3. 추석 합동 위령미사 안내 : 27일(금) 전 6시, 전 10시
* 미사에불은 26일(목)까지 사무실에 접수바람.
 4. 금주 모임 : ①성모회-오늘 공식미사 후, 유아방
②전례부-오늘 공식미사 후, 성당
 5. 반모임 : 26번-20일(금) 후 8시, 김복순(말지나)
T.85-1365
 6. 금주 전례 : 공식미사 해설-이주철(야고보)
독서-①최기호(도마) ②손점순(아네스)
 7. 차주 전례 : 공식미사 해설-남정숙(제노베파)
독서-①진정후(사베리오) ②김성희(율리안나)
 8. 청소 안내 : ①금주-사랑의 샘Pr. ②차주-상아담Pr.
- 지난주 봉헌금 : 1,045,200원 □ 교무금 : 1,310,000원

*** 복자** 주임신부 86-3453 사 부 실 86-3455 주임신부 정 승 현
수 너 원 86-3454 사목회장 박 성 기

1. 신부님 피정 : 16일~20일, 아론의 집
 2. 병자 봉신체 : 20일(금) 후 2시
 3. 남전주지구 초등부 체육대회 : 22일(다음요일), 성심학교
 4. 영광굴비 판매 : 울뜨레아-22일(다음요일)
 5. 추석 합동 위령미사 : 27일(금), 6시, 10시30분 미사
* 선영들을 위해 정성껏 봉헌바람(25일까지)
 6. 추석 미사 제물(과일 및 곡물) : 봉헌 바람.
 7. 금주 모임 : 빠스카회-성지에서
 8. 주간 모임 : ①울뜨레아-17일(화)
②성모회-19일(목) 전 10시
③M.E모임-20일(금) 저녁미사 후
④빈첸시오회-21일 전 10시
 9. 북한 수재민을 위한 성금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익명 3만원, 김양수 1만원
 10. 조중고생 자녀를 둔 부모님께서는 학생들이 미사와 교리에 참여하도록 적극적인 협조바랍니다.
 11. 금주 전례 : 해설-오교성, 독서-육종만 부부
 12. 차주 전례 : 해설-유복규, 독서-구본창 부부
봉헌-한용석 가족
 13. 성당 청소 : 21일(토) 김순하신자의 모후Pr., 자비의 모후Pr.
 14. 감사헌금 : 구정자 10만원
- 지난주 봉헌금 : 600,550원 □ 교무금 : 1,264,500원

*** 전 동** 주임신부 81-0098 사 부 실 84-3222 주임신부 김 봉 희
보좌신부 82-7245 수 너 원 82-9234 보좌신부 송 영 진
F A X 82-6232 유 차 원 84-8347 사목회장 주 현

- ◎ 순교자 현양 가든 음악회 : 21일(토) 후 7시 30분, 전동성당 드락
- ◎ 순교자 현양 햇빛 미사 : 20일(금) 후 7시30분, 치명자산
- ◎ 영세식 : 22일, 공식미사 중
김중교리-16일~19일 후 8시
민담-16일 일요일만 전 10시~12시, 후 2시~5시
17일 화, 목요일만 전 10시~12시, 후 2시~5시
18일 수, 토요일만 전 10시~12시, 후 2시~5시
1. 금주 모임 : ①바느의 성모 꾸리아-후 2시
②청년회-후 8시
 2. 주간 모임 : ①성화회-16일 후 7시
②성모회-17일 전 11시
③베네타회-18일 전 11시
 3. 사제 피정 관계로 17일, 18일, 19일 저녁미사는 없음.
 4. 액정 비전 상영 : "성지순례 구역편" 17일(화)~20일(금)
전 11시~12시, 후 9시~10시, 출연관
 5. 추석 합동 위령미사 : 21일까지 사무실에 접수
 6. 차주 모임 : 성 바리야 교미시음-후 2시
* 22일은 성지 순례 관계로 자가용은 경기전 주차장 이용바람
- ※ 성지개발 헌금 정성껏 봉헌 바랍니다.
- 지난주 봉헌금 : 2,184,680원 □ 교무금 : 4,796,000원

*** 상 관** 주임신부 85-6654 사 부 실 85-6652 주임신부 김 영 열
F A X 85-6652 수 너 원 85-6653 사목회장 강 덕 용

- ◎ 9월은 순교자의 성월 : 순교정신을 본받아 신앙을 증진합니다.
1. 금주 모임 : 성가대, 세례세자모임, 애병회봉사자모임
-공식미사 후
 2. 차주 모임 : 성모회, 사모회
 3. 추석 합동 위령미사예물 : 사무실에 접수
 4. 사제피정 : 16일~20일 * 신부님을 위해 많은 기도바람.
 5. 미사시간 변경 : 월, 수, 금-새벽미사(전 6시)
화, 목-저녁미사(후 7시)
 6. 성체강복 : 12일(목) 저녁미사 후
 7. 전례자 모임 : 15일(일) 공식미사 후, 성당
-해설자, 독서자 전원 참석 요망
 8. 성당 청소 : 금주-신비로운 장미Pr.
차주-모든 성인의 모후Pr.
 9. 금주 전례 : 해설-김기남, 독서-①최경범 ②오민숙
봉헌-최원규 가정
 10. 차주 전례 : 해설-김영신, 독서-①남현준 ②이순자
봉헌-김완석 가정
- 지난주 봉헌금 : 415,500원 □ 교무금 : 170,000원

*** 평화동** 주임신부 232-5001 수 너 원 232-5004 주임신부 이 상 설
F A X 232-5003 사 부 실 232-5005 사목회장 강 삼 근

- ◎ 본당 기공식 준비 및 행사에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 사제 피정 : 16일~20일 아론의 집(본당에는 말씀의 전례) 교구 신부님들을 위해 기도 바람.
1. 오늘 모임 : ①임마누엘, 한빛, 노영, 성소후원회-공식미사 후
②천주의 모후Cu.-후 2시 30분
③청년회(주, 저녁미사 후)
 2. 주간 모임 : ①자모회-20일 전 11시30분
②성가대 월례회의-20일 후 8시
③형제기도회-8구역7번, 20일 후 8시 30분
 3. 차주 모임 : 울뜨레아, 풍송회-공식미사 후
 4. 추석 합동 위령미사 : 선영들을 위해 기도바람.
 5. 감사드립니다.
 - ①성전신축봉헌금 인입구좌(1구좌 : 100만원) : 장정순(추가)
4, 김영중4, 박순규4, 홍성옥4, 서기원3, 한보령3, 유정희3, 이충원3, 김정남2, 박부자1, 허애자1, 김철희1, 김선자1 소계 : 34구좌, 총계 : 360.1
 - ②성전신축봉헌금 남부 : 장정순400만, 이기주100만, 김나섭100만, 이명남50만, 최애순10만, 최순이10만, 성지희10만, 이양이10만, 안인순4만, 김학근3만, 정용은2만, 박성근2만, 임병태2만, 국경순1만 소계 : 7,040,000원, 총계 : 51,907,020원
 6. 후대폰이나 호출기가 있으면 부름은 사무실에 알려주세요.
 7. 주유권 판매에 우리들이 관심 갖고 이용바람.
- 지난주 봉헌금 : 2,433,450원 □ 교무금 : 704,000원

상설 고백소 : 9월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2시~5시, 전동성당